



■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및 총사령관직 사임

피델 카스트로는 2월 19일 기관지 《그란마 Granma》 온라인판에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국가평의회 의장 및 총사령관직에서 사임할 것을 밝혔다. 2006년 7월 이후 내장 질환 때문에 동생인 라울 카스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트로에게 대통령직을 임시로 맡겼던 카스트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헌신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막중한 임무를 떠맡는다는 건 양심에 거리낀다고 말하며 완전한 사임을 선언했다. 이로써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한 쿠바혁명의 성공 이후 1959년 2월부터는 총리로, 또 1976년 3월부터는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권좌에 있었던 카스트로의 장기집권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카스트로는 이 서한에서 자신의 후계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2월 24일에 있을 의회에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대통령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99.4%의 지지를 얻어 98.3%를 얻은 카스트로를 앞지르기도 했다. 카스트로는 쿠바 민중들이 자신의 부재를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말하며 자신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며 ‘피델 동무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며 사상 투쟁의 전사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장래의 계획을 밝혔다. 《El País》 (2008. 2. 19.)

■ 파라과이, 역사상 최초로 여성대통령 후보 선출

1월 21일 파라과이의 집권당인 콜로라도 당은 전 교육부장관인 블란카 오벨라르(Blanca Ovelar)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블란카 오벨라르는 접전 끝에 현 부통령 루이스 카스틸리오네 후보를 1%의 득표 차로 누르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카스틸리오네는 자신을 찍은 30,000여 표가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대통령 후보 선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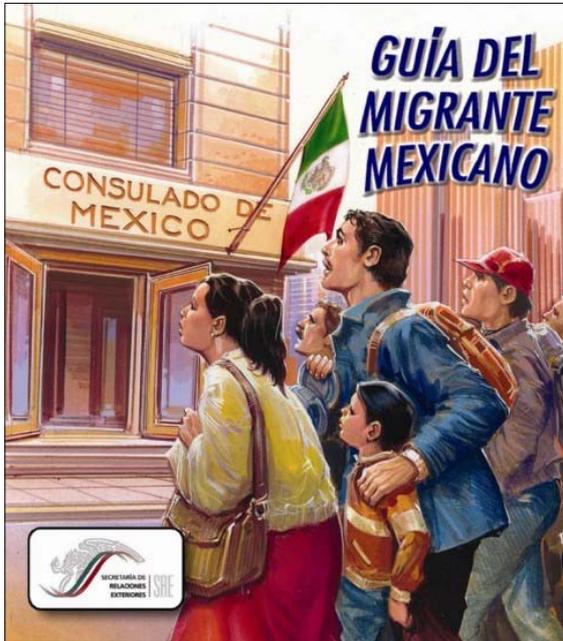


블란카 오벨라르



하지만 오벨라르는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올 4월에 있을 대선에 온 힘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있는 오벨라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칠레의 미첼레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 《Viva Paraguay》 (2008. 1. 24.)

■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 멕시코



멕시코 외무부에서 발행한 ‘미국이민 안내서’. 사막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불법이민자의 사망이 급증하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53% 가량임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분포이다.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한다. 가부장적 사회인 멕시코에서 결혼한 여성이 이민을 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국경을 넘는 데 따르는 여러 어려움과 미국에서 멕시코 이민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비정규직이고 농업이나 산업에 관계된 일이라는 점이 더 큰 요인이다. 또한 멕시코 이민자의 5.2%만이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BBC Mundo》(2008. 2. 20.)

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로의 이민자 중 25%가 라틴아메리카 출신으로 21%인 아시아 이민자 수를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가 멕시코인이다.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의 85%는 미국을 이민지로 택하고 있는데, 멕시코 이민자들의 경우 99%가 미국으로 향한다.

멕시코 이민자는 성별 분포에 있어 남성 56%, 여성 44%이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여성 이민자 비율이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미국에 석유 판매 중단 경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 국유화 정책에 반발하여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의 해외자산 동결 소송을 외국 법원에서 내 승소한 세계최대의 석유회사 엑슨 모빌에 대해 베네수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는 미국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난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특유의 신랄한 표현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자산을 동결해 피해를 입힌다면 이를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미국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거라 경고했다. 엑슨 모빌은 국제적인 분쟁 조정 소송을 통해 영국 법원에서 120억에 달하는 자산 동결 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은 야당이 식량배급을 보이콧하고 마약보급 등을 통해 범죄율을 높여 대중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해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려 획책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Telesur》(2008. 2. 10.)

■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3국 가스 배분 문제 논의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리고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월 2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가스 배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가스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개최되었다. 국내외 가스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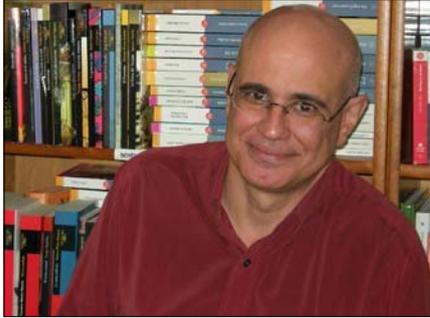


가스정상회담에 참석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정상들. 왼쪽으로부터 브라질 룰라 대통령,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가 1일 4,600만 입방미터에 달하지만 현재 볼리비아의 1일 생산량은 4,000만 입방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스와 전력 수요가 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브라질에 공급되는 볼리비아 가스의 일부를 넘겨받으려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신 룰라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상호 부조할 것을 역설하며 필요할 경우 아르헨티나에 전력 공급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세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정상회담 결과 각국은 열흘 이내에 라파스에서 브라질석유공사(Petrobras)를 포함한 3개국 에너지 장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BBC Mundo》(2008. 2. 24.)

■ 오를란도 로드리게스, ‘알파과라 문학상’ 수상



안토니오 오를란도 로드리게스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는 쿠바 망명작가 안토니오 오를란도 로드리게스(Antonio Orlando Rodríguez)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뉴욕 등 대도시에서 서커스와 극장 무대에서 활약한 난쟁이 예술가의 생애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소설, 『치키타 Chiquita』로 스페인 알파과라(Alfaguara) 출판사가 수여하는 11회 ‘알파과라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페인어로 ‘작은 아이’를 뜻하는 ‘치키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신장이 채 69cm도 되지 않는 쿠바 여성 에스피리디오나 센다(Espiridiona Cenda)의 삶을 당대 출간된 서적과 신문 등의 자료를 통해 재구성한 이 작품은 심사인단에 의해 “우아하면서 동시에 삶으로 가득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956년에 쿠바에서 태어난 젊은 작가에게 수상의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성인소설과 희곡작품도 출간한 바 있지만 저자는 그동안 주로 아동소설을 창작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소설을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991년부터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및 미국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저자는 카스트로의 사임과 더불어 쿠바 내에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그는 『치키타』에는 쿠바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조국의 쿠바인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l País》(2008. 2. 26.)